여 행 보 고 서

(2014년 10월, 일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 옥 수 의 원)

2014년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4박5일 일본 연수를 다녀왔다. 이번이 5번의 기회 중 작년을 제외한 4번째인 해외연수는 항상 비판이 뒤따랐다. 서구의회에서도 해외연수에 대해 3가지 이론이 있었는데 예산도 잡혀있고 계속 해오던 것이니 어쨌든 해야한다와 이왕 하는 것 연수답게 공부 차원에서 다녀와야 한다. 그리고 여론도 비판적인데 관광성격이 짙은 해외연수를 가지 않겠다는 의원들로 갈렸고 본 의원은 두 번째 의견을 주장하였다.

그 이유로 평소 마을기업, 주민자치, 지역고용 등에 관심이 있었는데 작년에 지방자치단체장 28명으로 구성된 '목민관클럽'에서 위와 같은 주제로 주민자치 마을기업의 종주국으로 불리는 일본연수를 호평속에 다녀왔음을 알았고, 광산구 의회에서도 올해 같은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합류를 요청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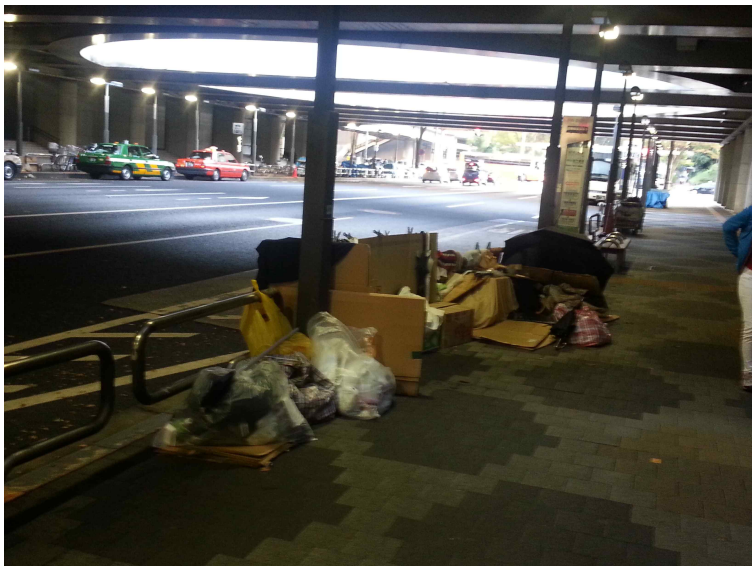
그리하여 추진된 일본연수는 몇 차례의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광산구 의회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서 결국 두 가지로 실시되었고, 우리 팀은 6일 새벽 02:30 김해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는데 06:00 도착한 우리는 가이드에게 07:30 출발할 비행기가 도쿄에서 현지사정으로 뜨지를 못했다는 황당한 소식을 들어야했다. 일본을 관통한 18호 태풍 '판폰'의 영향으로 강풍과 집중호우가 있었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주민대피령이 발령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태풍이 도쿄를 막 통과했으니 오전을 지켜보자며 경전철을 타고 부산 사상구로 가서 아침식사와 세면을 하기로 하였고 계속 현지와 연락을 취하기로 하였다. 결국 점심시간쯤 비행기가 간신히 돌아왔고 12:50 서둘러 출발한 비행기는 15:30 일본 나리타공항에 도착했으나 공항은 썰렁했고, 소식을 들으니 우리가 탄 KAL기가 첫 번째 도착한 비행기였고 여러 편이 결항됐다 한다.

그날 우리의 일정은 모두 취소되었지만 불행 중 다행이라며 도쿄 숙소로 이동하는 차량에서 첫 번째 질문이 후쿠시마 원전 관련이었고, 가이드께서는 180 km 떨어져 있으니 방사능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다고 안심시켜 주었다. 일정상 첫 방문지였던 폐교를 활용한 오모차 장난감 박물관 탐방이 취소되자 지역구에 폐교가 있는 광산구 의원들이 아쉬워했는데 일정이 되는 대로 다시 추진키로 하고 우선 먼저 도쿄都廳을 방문하였다.

일본 3대 도시인 도쿄, 오사카, 나고야 중 최대 도시이며 과거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쿄도는 행정구역상 23特別區, 27市, 5町, 8村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 1천8백2십만 명의 세계적 도시답게 쌍둥이 건물로 지어진 도청은 지상45층 규모의 랜드마크로 온 시가지가 내려다보이고, 후지산이 바라보이는 전망대에는 특산품 판매장을 겸하고 본관 1층에는 특이하게 도쿄관광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여러 외국어로 안내 책자와 화면으로 도쿄와 일본 전역을 설명하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우리 구청 로비에는 우리구의 자랑거리를 소개하고 있는지 잘 확인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운 생각이 든다.

쌍둥이빌딩 사이로 6차선 도로가 지나가고 3층 높이 쯤으로 건물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아래 가드레일 옆에는 노숙자의 살림살이로 보이는 잡다한 물건들이 적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며 노점상은 볼 수 없는 거리에 이 또한 특이하다는 생각이 든다. 권은 모르되 기본인권은 보호해 주는 것인지 알아보지 못해 아쉽다.



가이드께서는 첫날 숙소로 가기 전 저녁식사를 시내구경 겸하라고 번화가인 신주꾸에 잡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말 그대로 싸고, 맛있고, 푸짐한 완전 현지 서민식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가이드께서는 미리 우리와 약속한 관광, 페키지 옵션, 쇼핑 없는 3無 해외연수가 야속했을 것이다. 우리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연수를 왔으니 용도에 부적합한 지출은 피하기로 하였으니 충분히 이해는 되었다. 30분쯤 자유시간을 줬고 몇몇이 어울려 여기저기 둘러본 신주꾸의 밤 문화는 그리 점잖지는 못한 듯하였다.

먹자골목에 가장 눈에 띄는 한 집 건너 빠찡꼬, 유흥업소, 모텔, 여성 직업소개소 등등 별로 배울 것은 없었으나 눈에 띄는 좋은 점이 두 가지는 있었다. 하나는 이동식 볼라드로 평소에는 차가 다니다가

행인들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보행자 위주로 차량통행을 금지하였고, 또 하나는 도심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 현장을 거의 밀폐시키듯 차폐 후 공사를 한다는 것이다. 건축물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도록 대충 막고 공사를 하는 우리 방식과 차이가 있었고 주민들 통행이 많은 일정지역과 시간에 보행자 위주로 전환하는 아이디어가 배움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경 후 점심을 기내식으로 때우고 허기를 느끼며 약속된 식당에 들어서자 큼직한 홀에 고깃국 냄새가 진동하였고 자리를 잡으니 그곳은 소고기 샤브샤브 집이었는데 특이하게도 우리 돈으로 15000원 쯤 내고 무한리필 두 시간 무제한 먹을 수 있었다. 식사량이 남 보다 큰 나를 포함하여 모두 괘재를 불렀고 오랜만에 포식을 해볼 량으로 여러 야채와 소고기를 계속 주문했으나 빨리빨리 문화에 젖은 우리는 결국 30분 만에 모두 포만감을 안고 식당을 나오고 말았다.

아직도 1시간 30분을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얍삽한 일본 상술이 오직 따져보고 계산해 봤겠는가 하며 모두 쓴웃음을 지었다.

잠시 후 우리가 도착한 곳은 도쿄도청 갈 때 차창 밖으로 보이던 높다란 도쿄타워 옆에 위치한 숙소였고 333m라고 설명을 들었으나 훨씬 더 큰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야간 조명까지 켜지니 엄청 멋졌고 창문 너머로 타워의 야경이 보이는 방으로 배정받아 더 기분이 좋았다.

여장을 풀고 밖으로 나가보고 싶었지만 일본의 물가와 환율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한 방에 모여 가져간 김치에 소주를 몇 잔씩 마시니 꼭두새벽부터 잠 설치고 달려온 피로가 누적되어 모두가 피곤하다며 각자 방으로 갔는데 몇 명이 그래도 근처를 한 바퀴 돌아보자 재안했고 우리 광주로 치면 사직공원 근처쯤 됨직한 분위기의 도쿄타워가 있는 커다란 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거리로 나갔다.

큰 도로 위에서는 작은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은 크든 작든 도로공사를 야간에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공사표지판과 도로위에 놓는 삼각뿔 통제봉에는 꼭 야간조명시설을 꼭 갖춰야 한다고 한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주택가 차선도 없는 이면도로로 들어가니 우리 지역에서는 밤만 되면 이면도로를 꽉 메우고 있는 불법주차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다가구 주택에는 두세대쯤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과 함께 복층으로 되어 있는 자전거 거치대를 갖추고 있으며 곳곳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이 있었다.

24시간 영업을 하며 하루에 최고 1.800엔, 30분에 300엔으로 요금도 그리 비싸지 않은 공영주차장 덕택에 한 대만 불법주차를 하여도 통행에 지장이 있을 좁은 이면도로의 통행이 이처럼 원활함은 근본적으로 대중교통과 자전거 문화 그리고 충분한 공영주차장의 공급이 일본 교통문화의 근간임을 볼 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여 도로를 개설하고도 곧바로 주차장이 되어 버리는 우리 구의 현실에 대해 우리나라의 교통정책도 배움직하다는 생각이 절실했다.

이튿날 첫 일정으로 가와사키市 ECO TOWN으로 이동하였다. 가나가와縣 가와사키市는 도쿄와 요코하마 사이에 위치한 작지만 인구밀집도가 높은 공업도시이며 政令持定都市였다. 정령지정도시란 지방자치가 부러울 만큼 일찍 도입된 일본은 1956년 지방자치법에 의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위해 상급기관의 사무를 이양해서 자치구를 설치케 됨으로서 행정과 재정의 효율성과 지방분권을 목표로 추진된 세심한 행정 서비스와 선진화된 지방자치 시스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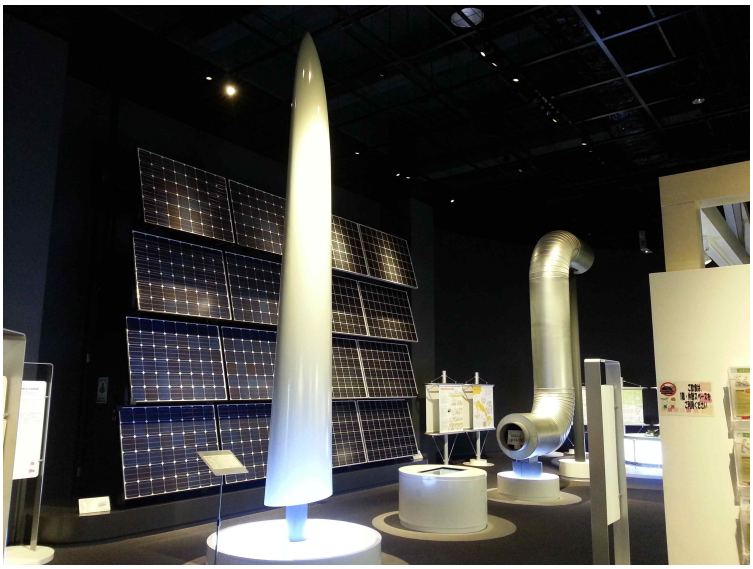
게이힌(京浜)공업단지 안에 위치한 가와사키시는 근대부터 철강, 화학 등의 중공업과 전기, 기계 등 제조공업이 발달하며, 이에 따른 공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해방지기술과 환경기술을 축적하게 되며

산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정책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3가지 사업을 주축으로 환경정책을 실현하고 있었다.

첫째, 뛰어난 기술적 전통을 살린 환경대책으로 가와사키에서 온난화대책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 도시의 특징을 살펴야하는데 지금 현재 가와사키에는 200개 이상의 연구기관과 대학이 입주해 있고 고도의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 역시 집중화 되어있으며, 그동안 공해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고 에코타운을 만든 것이 바로 이러한 개선의 집중정책이었다 한다.

그런 결과로 대기오염의 개선을 공기 중에 이산화황의 감축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요인으로 에코타운 지역에 입점하고 있는 리사이클 시설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었는데, 예를 들면 사용한 페트병을 다시 페트병으로 만드는 공장, 재활용 자재를 활용한 시멘트 제조시설인 데이시아, 폐플라스틱에서 추출하는 암모니아 원료화시설인 쇼와전공,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효율을 자랑하는 콤바인드 사이클 발전시설 등이 그런 예이다.

이런 시설과 공장들이 서로 연계함으로써 상호 이익이 많았다고 하는데 공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활용하여 주변의 9천6백 세대의 난방에 이용하는 것도 그런 예로 이산화탄소를 보면 4천 7백세대분의 CO2 배출 감량의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이는 환경기술을 도입한 업체들이 온실효과 감소를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생활 속에서 평가하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 하였는데 이런 에너지 절약형 제품 등을 가와사키 모델이라 부르고 있었다.



둘째, 가와사키의 자랑인 환경기술을 통한 국제적 공헌으로 UNEP가 추진하는 아시아태평양 에코타운 프로젝트에 협력하여 UNEP 에코타운프로젝트회의를 개최 했는데 이는 UNEP 에코타운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2004년부터 아시아태평양에코비즈니스 포럼을 가와사키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또 작년부터는 IROFHQRP 국제 환경기술전을 개최함으로서 가와사키 제로이미션 공업단지 등을 비롯한 시설, 환경기술, 환경제품 등의 정보와 기술을 전세계에 알리고 동시에 환경기술의 이전에 의한 국제공헌을 진행하고 있었다.

셋째, 시민, 기업, 행정의 협동에 의한 CO2 감축 추진으로 2004년 가와사키 지구온난화 대책추진협의회를 설립했고 2010년에는 CO2 감축 6%를 달성하기로 결의하며 시민부회, 사업자부회, 학교부회, 행정부회 등 다양한 에코조사대를 두게 되었고 특히 초등학생들에게도 그런 에코 조사를 벌이게 하는 것이 바로 에코조사대 활동이라고 한다.

이런 생활 저변에서부터 다양한 활동이 전개 되는데 슈퍼마켓에서도 협의회 등과 함께 CO2절감협정을 체결하고 행정구의 다양한 시설에는 열대식물 고야(수세미과 덩굴식물)를 심어 벽에 녹색의 커텐이 쳐지게 하고 있으며 그 씨를 시민들에게 나누어주어 일반 가정의 벽에도 자라게 하여 에너지 절감운동을 펼치고 있다한다.

그 중 가장 부러운 것으로 시민공동발전소의 설치였는데 시민단체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받게 되는 보조금과 일반 시민들로부터 모금을 해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한 초등학교에서는 자신의 학교 졸업생들이 모금을 해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생산하는 것은 학교가 다 쓰는 것이 보통이며 가정의 경우 낮에는 남는 전기를 도쿄전력에서 사주는데 일반 전기료에 버금가는 정도라고 한다.

지금 계획 중인 것으로 가와사키 임해부에 국내최대의 태양광발전소가 있는데 가와사키시에서 매립지와 사유지를 무상제공하고 여기에 東京電力이 시설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일반가정 5천9백 세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생산됨으로서 8천9백톤의 CO2 감축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니 예산만 투입되고 방치되다시피 관리하는 우리 구 상무지구의 태양광 시설에 대한 비교로 이어지며 이런 시설에 대한 조사와 대책수립이 절실함이 느껴지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되는 환경운동에 사회 각층에서 생활화하는 모습을 보며 가와사키시의 3R운동(Reduce, Recycle, Reuse) 쯤은 우리도 본받음직하다는 생각이다.

일본에서 첫 점심으로 3대째 가업으로 이어 온다는 스시를 먹어 보게 되었다. 우리의 정서로 본다면 유명세를 타고 맛집으로 소문이 났을 것이고 많은 돈을 벌어 대형 매장으로 확장을 했음직한 데도 그 집은 할아버지께서 개업하실 당시 그곳에서 그대로 영업 중이라 한다.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는 1칸짜리 식당에 들어서자 실내는 10평쯤 되어 보이고 사장이 다찌바 안에서 직접 조리를 하고 어머니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께서 매우 친절하게 홀 서빙을 하셨다. 솔직히 스시맛을 잘 모르지만 장인의 작품을 감상하는 자세로 한 알씩 음미하며 숟가락도 주니 않는 젓가락 문화라 된장국을 직접 마셔야 했다. 현지에 가면 그곳만의 문화를 경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방에서 직접 담갔다는 사케를 두 가지 주문하였다. 각각 다른 사케 두 잔을 동시에 놓고 마시자 일행들이 왜 그렇게 마시느냐고 묻는다.

나는 객지에 가면 가는 곳마다 그 곳의 전통주를 찾아 마셔보는 것이 취미이며, 올 여름 휴가 때 강원도에서는 10여 가지 막걸리를 마셔본 경험 이야기를 하자 여럿이 두 잔씩을 주문하고 따라하니 궁금해 하는 주인에게 가이드께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았고 처음 본다며 재미있어 한다고 통역해 준다. 주

인 할머니께 또 와보고 싶다고 하자 연방 허리를 꺾으며 연발하는 “도모 아리가도 고자이마쓰”를 뒤로 하고 오다이바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오다이바는 동경만 일부를 매립하여 조성한 신도심인데 커다란 전자, 문구 도매상 빌딩을 중심으로 앞 쪽은 항구로 연결되고 뒤쪽은 후지TV와 도요다 자동차 쇼룸, 유원지 등이 있었고 먼저 항구 쪽을 돌아보기로 하였다. 산책길 옆으로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똑같이 세워져있고 옆 유원지에 싱가폴에서 타 보았던 커다란 수레바퀴 전망대와 바다 건너편에는 해운대를 건너는 광안대교와 비슷한 레인보우브릿지라는 다리가 도쿄만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디즈니랜드를 베껴 놓고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베껴 놨다던데 일본은 모방의 천재라고 쓴웃음을 지었으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집념이 무섭게 느껴졌다. 산책길을 한참 걸어서 건너편 언덕 중간을 파고 조성한 것처럼 생긴 여객선 터미널로 갔는데 터미널 둥근 지붕이 흙으로 덮인 곳은 잔디를 심었고 대부분의 산책로, 통행로가 목재로 덮여 있었습니다. 일본이 주산지인 히노끼라는 목재라고 설명을 듣고 그냥 시멘트로 뚝딱 지으면 됐을 것을 막대한 예산을 퍼부었다고 흉은 봤지만 속으로는 주민의 건강과 조경을 생각하고 관광자원화를 위해 대단한 기획력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돌아 상가 뒤편 도요다 자동차 쇼룸을 방문하니 각각 다른 차량 모델이 150대쯤 전시되어 있고 각종 차량 용품과 초대형 화면으로 설명을 곁들이는 레이싱 모델들이 있어 자동차 박람회장을 연상케 하는 엄청난 규모에 모두 놀랐다. 자동차 강국다운 면모에 감탄하며 우리 광주에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 공약과 광주의 중고차 매매상가 80 %가 밀집되어 있는 매월동에 자동차 박물관을 조성해야 한다는 중고차 매매조합의 요청이 겹치며 머릿속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았다.

셋째 날, 항구도시 요코하마로 이동하였다.

일본 최대의 공단 밀집지역인 게이힌(京浜) 공업지대의 일부인 요코하마는 혼슈(本洲)의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도쿄灣 서쪽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운산업의 중심지이며 2차 대전 당시 조선소가 위치한 군사기지였던 관계로 전쟁 말기에 미국의 대규모 공습으로 큰 피해를 입었었다고 한다. 개항 150주년을 기념하는 안내판 뒤에 위치한 맥아더 장군이 종전 후 숙소로 사용했다는 뉴그랜드호텔 앞으로 시원한 바다풍경과 함께 깨끗이 조성된 야마시타 공원을 가로질러 마을만들기 사업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아카렝가 창고를 방문하였다.

빨간벽돌창고를 매력적인 문화, 쇼핑공간으로 재생시킨 Yokohama_red brick_warehouse는 전시장,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갖춘 1호관과 잡화, 레스토랑 등 상업시설로 2호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나

토미라이21이라는 계획에 의해 추진이 되었는데 부지는 과거 미쯔비시 조선소, 다카시마 부두, 요코하마 철도역 등이 있던 도쿄의 배후도시로서 물류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했던 곳이다.

조선소를 옮긴 자리를 비롯한 해안일대에 요코하마를 독립적으로 발전시킬 지구계획의 일환으로 도시 정체성을 부각 시키는 전략을 세웠는데 중앙지구의 고밀도 개발전략과는 달리 아카렝가 창고가 포함된 신코지구는 150년 전 개항의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는 쪽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했고 이로 인해 세관창고고 사용하다 방치된 건물을 외관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지금의 아카렝가 창고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한다. 근대 건축임에도 불구하고 두께가 60 cm쯤이나 되는 튼튼한 내진설계가 가미되어 지금도 금 간 곳 하나 보이지 않는 훌륭한 건축물이었다.

아카렝가 창고를 포함한 미나토미라이21 구상은 민관합동 출자법인인 주식회사 미나토미라이21과 토지 소유주들 간의 '마을만들기협정'을 통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도출시켰고 이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이익보다는 도시의 정체성을 우선시하는 도시개발이 가능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30년 전 일방적인 관주도에서 벗어나 민관협력으로 맺어진 이 협정이 지금도 수정 없이 잘 지켜지고 있다하니 대형사업은 관주도로 추진되는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여 많은 시사점을 남겨주고 있었다.

아카렝가 견학을 마치고 첫날 일정의 차질로 취소되었던 오모차 박물관 견학을 아쉬워하던 광산구의회 의원들의 요청으로 다시 추진했던 일정이 잡혔다는 가이드의 안내로 오모차 박물관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 동안 몇 차례 실시한 해외연수에서 패키지 관광으로는 불가능한 일정 조정은 이처럼 단독행사에서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의원이 패키지 관광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라 하겠다. 시내의 조그만 등학교였다는 오모차 박물관에 도착하니 이어지는 방문객들 중 이전 팀의 일정이 안 끝나 있었고 주변을 돌아보며 어렵게 일정을 잡았다는 가이드에게 감사를 전했다.

세계 최고 노인국가라는 일본도 출산율이 급감하며 도심 공동화 문제가 심각했고 이로 인한 폐교가 속출했는데 문부과학성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42.000여 개의 초, 중, 고등학교 중 9.5 %에 이르는 약 4.000여 곳이 폐교되었다 한다.

일본의 경우 학교가 폐교되면 학교가 아닌 다른 시설로 바뀌기 때문에 폐교의 활용 주체는 문부과학성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게 된다. 이때, 폐교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단순히 주민들을 위하여 개방하는 정도에 머물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국고보조금을 반제할 의무가 없으나, 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고에서 공립학교 시설정비의 목적으로 교부된 보조금은 보조목적 이외로의 전용이 불가하므로, 그 상당액을 지자체에서 국가에 반제해야 하는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이 때문에 해당 지자체는 이 반제금에 대하여 예산상의 부담을 가질 뿐만 아니라 폐교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소극적이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폐교의 유효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문부과학성에서는 '폐교 등 공립학교시설에 관계된 재산 처분 수속의 간소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한다.

이 정책의 골자는 '국고보조사업 완료 후 10년이 경과한 폐교에 대하여 무상으로 전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반제하지 않고도 장관에게 보고만으로도 용도를 바꿀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있었다. 이 정책에 따른 주요시설의 예로는 학교교육시설, 사회체육시설, 문화시설, 방과 후 아동육성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어린이 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해방지시설, 방재시설, 의료시설, 실험연구시설, 청사 등의 공공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런 정책을 시행한 결과 여러 지자체에서 폐교의 활용에 대해 보다 적극성을 띠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남겨져있던 많은 폐교들이 주요 도로 주변의 휴게소, 관광시설, 복지시설, 체험학습장 등 새로운 역할을 가지고 활용하게 되었다.

장난감 미술관은 '세계의 장난감과 친구가 되자'는 슬로건을 걸고 1984년 도쿄 나가노에서 지금의 관장 타다 치히로씨의 부친이 개관, 2007년 도쿄 신주쿠 요츠야의 폐교 건물로 확대 이전했다. 수만 점의 장난감을 소장하고 있는 뮤지엄으로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방문하여 장난감을 갖고 놀 수 있는 보육지원 공간이기도 했다. 200여명의 자원봉사 스텝들이 장난감 학예원으로 등록하여 장난감의 놀이 방법을 소개하며 지도하고 있었고 인재 양성을 위한 장난감 컨설턴트와 인스트럭터 양성 강좌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굿토이를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좋은 장난감 보급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신주쿠로 이전 개관하면서 그 자금 마련을 위해 '한 구좌 관장'이라는 참신한 방법으로 기부자를 모집하는 것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시민의 힘으로 대단한 시설을 만들어낸 한 구좌 관장들의 명단이 입구 벽면에 인테리어 장식처럼 차지하고 있어 홍보와 자긍심 고취에 활용되고 있었다. 명칭이 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달리 불리는 이유는 영어 표기로 museum이라 우리는 박물관, 일본은 미술관으로 해석의 차이인 듯 하며 '아동의 건전 육성과 육아지원을 위한 장난감 미술관'이라는 주제로 폐교의 활용과 독창적인 펀드레이징을 통한 사회적 기업의 대표적 성공사례라 하겠다.

일본 연수의 마지막 날 첫 일정으로 도쿄都 세타가야區 하네기 공원을 방문하였다. 하네기 공원은 단독주택가 중앙부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른 오전 시간임에도 상당수의 노인들은 아름드리 숲길을 걷거나 게이트볼을 즐기고 계셨고 여러 유치원들이 합동으로 운동회를 열고 있는 듯 수 백 명의 유치원생들이 학부모들과 어울려 놀이에 여념이 없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일본의 노인들은 우리처럼 특정하게 게이트볼 구장을 갖추지 않고도 그냥 흙바닥에 이동식 라이너로 선만 그어 놓고 운동을 즐기신다는 것이다.

우리 구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천후 구장을 두 곳이나 갖추고 있고 여러 동네에 정식 구장을 갖고 있다고 하니 우리 노인정책이 부럽다고 하시며 시샘하시듯 일본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어디에서든지 공간만 있으면 간편한 라이너로 선을 긋고 운동을 즐기신다고 힘주어 말씀하신다.

공원을 한 바퀴 돌아 하네기 공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하네기 모험 놀이터(Hanegi play park)'를 살펴보았다. '하네기모험놀이터'는 하네기 공원 관리동 뒷켠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30년 전 덴마크의 한 놀이공원을 본떠 주민들이 힘을 모아 이 놀이터를 개발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지금은 20여명의 부모들과 몇몇 스태프가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고 한다. 아이들과 놀아 줄 자원봉사자와 아이들의

친구이자 선생님 역할을 하며 놀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플레이 리더가 실무를 이끌어 간다.

거무스름한 흙바닥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시소, 그네, 미끄럼틀 같은 놀이 기구는 모두 폐목과 나무 판자를 이용해 만들어 졌는데 어설프고 불안해 보이기 그지없지만 이용하는 아이들은 유치원을 가기 전 유아들로 엄마와 함께 나와 맨 바닥에서 흙을 묻히며 뛰노는 표정 하나하나에는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으며 왕성한 호기심과 모험심만이 넘쳐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엄마들의 표정도 걱정스럽거나 불안한 기색도 없었고, 정형화된 놀이기구와 흙바닥도 아닌 모래밭에서도 비위생적으로 생각하며 아이들을 단속하는 우리네 아파트 단지 속 놀이터와 엄마들의 마인드와는 딴 판인 모습을 보며 경이롭다는 생각마저 들 뿐이다.

놀라운 점은 운영 경비 대부분을 주민들이 자기 일처럼 머리를 맞대는 세타가야구의 주민 참여 시스템, 바로 이곳 놀이터는 '마치츠쿠리(마을가꾸기)'의 관점을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마지막 일정으로 도쿄 북쪽에 위치해 작은 에도城이라 불리운 카와고에 중심 시가지에 있는 크라츠크리마찌라는 전통 건축물 30여채가 늘어선 상점가를 방문하였다. 원래 크라츠크리는 건축물은 흙으로 지어져 검고 두터운 벽, 큰 기와, 높은 집채 등을 가진, 카와고에만의 특색이 있는 전통 마치야(町屋, 상점과 주거를 함께 하는 가옥)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크라츠크리마찌에서는 근대 서양식 건축물과 절, 시계탑, 신사 등 각 시대를 대표하는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도 견학할 수 있어 시가지 자체가 박물관과 같은 곳이며 문화청의 <주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지정되었고 또 <아름다운 역사적 풍토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카와코에 1번가에서 이처럼 크라츠크리라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독특한 건축물이 세워지게 된 것은 1893년 카와고에 일대에서 발생한 대화재가 그 계기였다. 이 화재로 일대가 모두 불타버렸으나 오오자와 저택을 비롯한 크라츠크리 집만이 소실되지 않고 남아서 크라츠크리가 화재에 강하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이후 마을을 복구할 때 상인들은 모두 크라츠즈크리를 짓게 되었으며 그 후 크라츠크리의 독특한 경관으로 이 상점가는 가와고에 중심 상업지역으로 자리를 잡아 왔었다.

그 후 1960년대부터 철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면서 가와고에역 부근으로 상업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크라츠크리 상점가는 상업의 근대화에 밀리게 되었고 상속 등으로 주인이 바뀌면서 크라츠크리의 건조물도 점점 파괴돼 갔다. 이에 1980년을 전후해 마을 만들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크라츠크리 상점가의 경관을 다시 보존하게 되었고 관광지로서의 활기를 되찾게 됐다.

그렇게 조성된 크라츠크리마찌 마을 만들기의 주요 과정을 정리해 보면, 크라츠크리 건물 파괴를 막고 주민 스스로 마을 만들기를 하기 위해 1973년 크라노회가 결성됐고 주민 주최의 마을만들기와 상점가의 활성화와 경관 보존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크라노회는 NPO법인으로 200명의 회원이 가입해 기금까지 마을 만들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결론으로, 지금까지 살펴 본 일본연수에서 가와사키 에코타운의 에코조사대, 시민공동발전소와 요코하마의 관광명소 아카랭가를 탄생시킨 미나토미라이21구상, 오모차 장난감 박물관의 한구좌관장 펀드레이징, 하네기 공원의 하네기 모험놀이터의 중심 마치즈쿠리, 카와고에의 크라츠크리마찌를 조성해낸 크라노회 등 위에서 설명한 방문지 대부분의 공통점이 주민자치를 통한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다.

마치즈쿠리라 불리우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의 지역시민공동체가 자발적으로 도시와 지역을 가꾸어간다는 의미의 마을 만들기 운동이 전국 市, 町, 村에서 행해지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마을 만들기의 개념은 대략 3가지 정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고, 첫째는 거주지와 시가지 등의 환경개선, 둘째는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가했으며, 셋째 재생활성화가 공통적인 점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셋째의 지역과 도심의 재생활성화는 지역의 경제적 측면에서

쾌적성, 정체성, 예술성 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고 이것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마을 만들기는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본래의 취지 및 기본이념을 토대로 지역의 주권자인 주민이 도시를 계획하는 권리를 확립하기 위해 스스로 거주하는 시가지에 있어서 생활공간과 커뮤니티의 재생 활성화를 통해서 협동을 전재로 행하는 사회활동이고 자기 개혁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을만들기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결국 행복한 삶,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이다.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면, 경제적인 면, 물리적인 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능한 일인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마을 만들기 운동은 환경 거버넌스의 중요한 모델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모든 일본연수 일정을 마치고 다음날 점심 때 귀국하는 비행 일정에 맞춰 나리타 국제공항 근처 숙소로 이동하며 금번 연수에 대해 여러 아쉬움이 있었지만 알차게 꾸며진 일정들을 무사히 소화하고 일본의 여러 가지 선진문화를 습득했다는 충만감과 가슴 뿌듯함이 밀려오며 연수 중 보고 배운 것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